# 정유4사, 휘발유 가격인상 조짐 뚜렷

## 지경부, 6주 연속 하락에서 상승 반전 …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휘발유 내수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10월2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럴당 70달러 후반까지 가파르게 오른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최근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휘발유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Dubai)유는 10월20일 배럴당 76.38달러로 2009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재고 등을 반영한 시차는 보통 2주 정도"라며 "10월8일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만큼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정유기업들도 10월 셋째 주부터 가격을 인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0월20일 리터당 1613.65원에서 10월21일에는 1613.99원으로 소폭 올랐다.

에너지경제원 관계자는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평균 70달러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2>*